

일자리야 열려라!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

- 최상목 권한대행, 채용박람회 현장 둘러보며 청년과 기업 직접 격려
- 총 121개 기업 참여, 첫날 청년 5천 명 넘게 사전등록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3.19.(수)~3.20.(목) 이틀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에서 열리며, 총 121개 기업과 수천 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특히 3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대한민국채용박람회.kr)을 통해 사전등록 한 청년들이 첫날에만 5천 명을 넘었고, 1:1 이력서 컨설팅, 채용설명회·현직자 특강 등 부대행사는 사전예약을 받았는데 모두 조기마감이 되는 등 청년들의 열띤 호응이 있었다.

이번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올해 최초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체감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별 우수 기업과 청년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만남의 장’을 민·관이 힘을 합쳐 마련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권한대행),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등은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구직자와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최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며,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 고용을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채용박람회는 ‘기업채용관’, ‘커리어On 스퀘어’, ‘내일On 스테이션’, ‘청년On 라운지’, ‘NEW 테크존’ 등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업채용관’에는 8개 분야(중소벤처기업, 월드클래스 중견기업, 콘텐츠 산업,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취업,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바이오헬스관, 청년친화·일자리뜨임기업)의 115개 우수기업이 800여명 채용을 계획 중이며 인사담당자와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거나 '25년 채용계획 등 기업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채용관’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 구직자들 누구나 기업 부스에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커리어On 스퀘어’에는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ASML Korea, ㈜카카오게임즈 등 9개 기업이 참여하여 '25년 채용계획과 인재상 등을 청년 구직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우선 입장이 가능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도 현장등록 후 입장이 가능하다.

‘내일On 스테이션’에는 고용센터 직업상담사가 1:1 이력서 컨설팅을 제공하며, 퍼스널컬러 컨설팅, 무료 이력서 사진 촬영, 고용24 잡케어 체험 등도 함께 제공한다. 사전 예약한 청년 구직자들은 예약 시간에 맞춰 입장하면 되며,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청년 구직자들은 현장 접수를 통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청년On 라운지’에는 청년에게 친근하고 재미있는 체험형 미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년일자리 정책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NEW 테크존’에는 증강현실(AR), 머리 착용형 디스플레이(HMD) 활용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직업훈련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3월 20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채용박람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3.28.(금)까지 현장박람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전국 기업과 청년 구직자도 참가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온라인 채용박람회를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 | | | | | |
|-------|------------------------|-----|--------------------------|--------------------------|--|
| 담당 부서 |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 책임자 | 과 장 | 이병성 | (044-202-7327) |
| |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 원치욱 곽필순 김소영 김예지 | (044-202-7341) (044-202-7330) (044-202-7338) (044-202-7345) |
|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책임자 | 과 장 | 구현경 | (044-202-7440) |
| |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 정지혜 문준학 | (044-202-7433) (044-202-7468) |
| | | 책임자 | 과 장 | 조아라 | (044-202-7451) |
|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주무관 | 이상보 임채린 | (044-202-7435) (044-202-7437) |
| | | 책임자 | 과 장 | 장주성 | (044-215-8530) |
|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 찬 | (044-215-8536) |
| | | 책임자 | 과 장 | 이양주 | (044-203-6267) |
|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우정 | (044-203-6270) |
| | | 책임자 | 과 장 | 최윤억 | (044-202-4720)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염규희 | (044-202-4724) |
| | | 책임자 | 과 장 | 김경화 | (044-203-2411) |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승완 | (044-203-2414) |
| | | 책임자 | 과 장 | 김재은 | (044-203-4360) |
| |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조강진 | (044-203-4369) |
| | | 책임자 | 과 장 | 박상희 | (044-203-4070) |
|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현정 | (044-203-4077) |
| | | 책임자 | 과 장 | 김한숙 | (044-202-2901) |
|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최정상 | (044-202-2902) |
| | | 책임자 | 과 장 | 김준호 | (044-204-7440) |
|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이영순 | (044-204-7443) |
| | | 책임자 | 팀 장 | 유일호 | (02-6050-3481) |
| | 대한상공회의소 | 담당자 | 연구원 | 박상현 | (02-6050-3482) |
| | | 책임자 | 팀 장 | 이재수 | (02-3771-0495) |
| | 한국경제인협회 | 담당자 | 수 석 | 김준호 | (02-3771-0455) |
| | | 책임자 | 팀 장 | 최문석 | (02-3270-7371) |
| | 한국경영자총협회 | 담당자 | 책임위원 | 허정호 | (02-3270-7366) |
| | | 책임자 | 과 장 | 김덕훈 | (02-6000-5952) |
| | 한국무역협회 | 담당자 | 대 리 | 이승제 | (02-6000-5396) |
| | | 책임자 | 실 장 | 정민호 | (02-2124-3270) |
| | 중소기업중앙회 | 담당자 | 사 원 | 강채빈 | (02-2124-3276) |
| | | 책임자 | 팀 장 | 지민호 | (02-3275-3098) |
|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담당자 | 책 임 | 이윤주 | (02-3275-3093) |

미래를 향해 힘찬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주고 계신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과 기업 관계자 여러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일자리의 연결을 넘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청년 취업여건을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가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우수한 인재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혁신'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역시
'미래세대인 청년과 기업'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의 도전과 열정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고,
그렇게 성장한 기업이 다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정부는 청년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을케어플랫폼 등 고용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용 애로해소 핫라인 본격 가동 등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성장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을
많이 채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출발선에 서지 않으면 결승선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21개 우수기업이 참여하였고,
이력서·면접 컨설팅, 채용설명회 등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 만큼,
오늘 박람회가 취업 성공의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마지막 한 걸음까지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